

일본 부흥 내셔널리즘을 넘어서

포스트 3·11 재난문학의 행방

배관문

1. 머리말

천재지변이 잦았던 일본에서는 고대부터 재해에 대해 많은 담론을 생산했고 이를 문학작품으로 기록해 왔다. 일반적으로 일본인은 불교의 영향으로 “모든 일이 덧없고 항상 변화한다”는 무상관(無常觀)을 지니고 ‘체념’의 심정으로 재해를 바라보았다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무상관과 체념의 자세로 감상적으로 재해를 관찰하고 이를 고전 문학 작품으로 승화했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일본인들은 적극적으로 ‘부흥’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재해와 부흥’을 일종의 자연적인 사이클로 받아들

배관문(裊寬紋) 원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일본사상사, 특히 에도 시대 국학 사상을 중심으로 일본 역사와 문화의 기원에 관한 논의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황국의 발견: 일본 국학의 자국 표상 담론』(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역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후: 한일의 미래를 위한 당사자의 관찰과 시사』(제이앤씨, 2019) 등이 있다.

<https://doi.org/10.29154/ILBI.2022.27.306>

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인들의 순환론적 역사관으로 이어지고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상적인 해석에 관해 2013년에 출간된 후쿠시마 료타(福嶋亮大)의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復興文化論: 日本的創造の系譜)는 반론을 제기한다. 이 책으로 저자 후쿠시마 료타는 산토리 학예상(サントリー学芸賞) 사상 역사 부문을 수상했는데, 심사평에서 “이 책은 국가를 황폐화하는 전란과 재액 이후에 그것을 ‘무상관’이나 ‘체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는’ 데 일본 문화의 독창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의욕적인 논고다.”라는 평가를 들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쿠시마는 일본의 전통이 무상관과 체념에서 비롯된다는 통념을 단호히 거부하고 순환론적 역사관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부흥’ 담론을 일본 문학에서 찾는다.

그는 고전 시가 『만엽집』(万葉集)에서 시작하여 중세 군기(軍記) 모노가타리, 주요 근현대 소설,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며 과거 일본 사회가 어떻게 부정적인 요소까지 끌어안으면서 치열하고 실천적으로 ‘부흥’을 꾀했는지 입증한다. 그의 『부흥 문화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만 여전히 “웅덩이에 떠오른 물거품”처럼 명멸하는 무상의 세계를 낫 놓고 바라보는 것만이 미에 대한 일본적 감상 태도라고 여기는 풍조에는 단호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 히토마로와 구카이, 『헤이케 이야기』와 나카가미 겐지, 바킨과 아키나리,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미시마 유키오, 혹은 테즈카 오사무와 미야자키 하야오—이들이 수행한 ‘부흥’을 알고서도 과연 것처럼 두루뭉술한 ‘무상관’의 미학이 일본 문화의 주류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¹

구체적으로 일본사에서 결정적인 변천을 가져온 ‘전후’의 시공간이란

1 후쿠시마 료타, 안지영·차은정 옮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 리시울, 2020, 444쪽.

다음의 사례를 가리킨다.

- 7세기 후반 하쿠스키노에(白村江) 전투, 진신(壬申)의 난 → 하쿠호(白鳳) 문화
- 12세기 후반 겐페이(源平) 전쟁 → 가마쿠라 불교, 『헤이케 이야기』
- 14세기 남북조 시대 → 노가쿠(能樂), 『태평기』
- 15세기 후반 오닌(応仁)의 난 → 히가시아마(東山) 문화
- 20세기 초반 러일전쟁 → 자연주의 문학
-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 서브컬처²

더하여 이 책에서는 중국의 동란에 대한 일본의 반응도 다루고 있다. 중국의 국가적 위기 및 멸망 체험이 바다 건너 일본 문화에도 중차대한 변천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저자의 표현에 따르자면, “자국의 현실적(real) ‘전후’ 뿐 아니라 타국의 가상적(virtual) ‘전후’까지 일본 부흥 문화의 토양이 된 것”이며, “이러한 원격조작이 일어난 것도 역시 극동의 섬나라다운 현상”이라고 말한다.³

본고에서는 일본문화론에서 유독 ‘부흥’의 역사적 전통을 강조하는 이러한 ‘부흥 문화론’이라는 담론을 시야에 두고, 동일본대지진 이후 성행하는 이른바 ‘재난문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여기에서 누락된 ‘지방’과 ‘지역’의 문제를 묻고자 한다.

2. 부흥 문화론은 유효한가?

1) ‘고도’의 문학이라는 평가

후쿠시마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만엽집』의 대표 가인 가키노모토노

2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 의 계보』, 11~13쪽.

3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 의 계보』, 13쪽.

히토마로(柿本人麿)가 진신(壬申)의 난이라는 내란 이후의 ‘전후’에 뿌리를 둔 작가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명한 히토마로의 장가(長歌) 「오미(近江)의 폐허가 된 도읍(=오쓰 궁, 大津宮)을 지날 때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가 지은 노래」가 “고도(古都)의 문학”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그는 히토마로에 그치지 않고 『만엽집』 전체가 “고도의 가집”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주장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만엽집』 권두의 노래는 유랴쿠 천황(雄略天皇)의 초적가(草摘歌)와 조메이 천황(舒明天皇)의 국견가(國見歌)로 시작된다.

천황이 지은 노래

바구니 바구니 들고 호미 들고 호미 들고서 이 언덕에서 나물 뜯는 아가씨 집을
고하라 이름 고하라 …

천황이 가구야마에 올라 온 나라를 내려보며 지은 노래

야마토(大和)에는 산도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아메노 가구야마(香具山) 산 위에
올라서 온 나라를 내려보니 …⁴

후쿠시마의 지적대로, 이 노래들에 나오는 천황의 궁은 『만엽집』 편찬 당시 이미 옛 수도였다. 당시 율령국가 시스템의 도입으로 근대화와 국제화가 잘 이루어진 신도시 후지와라쿄(藤原京) 혹은 헤이조쿄(平城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옛 도읍은 완만한 산줄기에 둘러싸여 보호받는 나라(奈良) 분지의 모습이었다. 고대에 천도(遷都)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이었고, 대개 천도 사이사이에는 화재와 지진 등의 이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러 차례 거듭되는 천도 사업 단행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에 따라 폐허가 된 수많은 도시에 대한 중층적인 기억이 바로 ‘고도’의 이미지였다는 것이다.

4 구정호, 『만요슈: 고대 일본을 읽는 백과사전』, 살림, 2005, 174, 175쪽.

『만엽집』에는 일본의 역대 수도에 대한 깊은 감회가 서려 있다. … 정치적으로 방치된 오미와 아스카의 수도가 노래의 힘에 의해 그리운 고도=고향으로 부흥되었다. 천도할 때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도는 가인들에 의해 망각의 심연에서 구출되어 문학적 정념을 환기시키는 대상으로 탈바꿈한다. 간단히 말해 수도를 만든 것은 정치의 힘이었지만 고도를 만든 것은 문학의 힘이었다.⁵

이처럼 정치적 패자의 정령이 서려 있는 고도=고향의 이미지와 감수성이 이후 일본 문학의 한 틀을 형성한다고 후쿠시마는 말한다. 그리고 이 부흥기의 가인은 실의에 깊이 잠기는 대신 오히려 문화적 창조성을 전애 없이 고양시켰다고 본다. ‘히토마로적인 것’, 그것이야말로 부흥기를 창조성으로 채우는 일본 문화의 면모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에서 시의 탄생인 동시에 일본 문학이 가진 약점의 기원이기도 하다는 단서를 붙인다.

히토마로적인 것의 맹점이란 무엇인가? … 부흥기의 히토마로 장가에는 오미 왕조의 망자나 요절한 구사카베 황자에 대한 영적인 호출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살아남은 측이 패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구조에서는 패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기 육성을 1인칭으로 말할 기회를 빼앗긴다는 문제가 있다. … 『만엽집』은 정치적 패자에게 생생한 목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굴원(屈原)과 같은 정치가의 울분도 잘 그리지 않는다. 정령을 불러내는 히토마로의 ‘전후’ 장가가 매력적일수록 정치가의 강인한 1인칭 문학에서는 점점 멀어진다. 단적으로 말해 진혼의 언어는 정치적 패자의 육성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문학적 경향이 지금까지도 면면히 흐르고 있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일본의 시가는 중국의 그것에 비해 예능적 요소가 강한 만큼 자전적 요소가 빈약하다는 것이다.⁶

5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 46~47쪽.

6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 67~70쪽.

후쿠시마는 이와 같은 일본 문학의 성격을 “2인칭의 우위”라고 명명한다. 이 표현은 이후 현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그의 저서에서 계속 사용된다. “1인칭의 기회를 빼앗는 것”, 패자를 향하는 진혼의 노래는 바꿔 말하면 패자의 자기표현 기회를 박탈하고 모든 것을 주술화=예능화할 수밖에 없다.

『만엽집』과 거의 동시대의 한문시집인 『회풍조』(懷風藻)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일본 시인들도 예외적으로 한시에서는 중국인을 모방해 어느 정도 정치적 자기표현을 할 수 있었다. 『회풍조』의 권두시는 오토모 황자(大友皇子)가 자신의 목소리로 스스로의 처지와 의지를 표현한 시였다. 부흥 당사자의 자기표현을 담당한 한문학은 히토마로적 진혼 문학이 결여한 부분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오미의 노래를 진신의 난에 대한 『일본서기』(日本書紀) 서술과 비교해 보면, ‘정사’(正史)에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만엽집』이 말해 주는 ‘역사’였음이 명확해진다. 『일본서기』의 편자는 진신의 난 장면에서 긴박한 어조로 일본일초 급변하는 전황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이 기술에는 양쪽 진영의 생사를 가르는 모략과 전투가 난무해 인간 역사의 역동성을 느끼게 한다. 그렇지만 일본 최초의 천재 시인은 ‘전중’의 긴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후’의 회고에 입각한 시를 읊었다.

일본 고전 문학에서 찾아낸 “2인칭의 우위”이자 패자를 향하는 진혼의 노래라는 특징은 중세 군기 모노가타리를 대표하는 『헤이케 이야기』(平家物語) 분석에서 그대로 반복된다.

일찍이 『겐지 이야기』는 상서롭고 아름다운 수도를 형상화했는데, 고대 말기에 이르러 내전 시대가 되면 일본 문학의 ‘수도의 중력’은 변영의 징표가 아니게 되고 도리어 불길한 재액=위기를 불러들여 종내에는 문명의 중추를 마비시켰다. … 비파 범사의 이야기에 기초한 『헤이케 이야기』는 ‘전후’의 시공간에서 이마비 상태를 재현했다. … 헤이케(平家)가 멸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이어진 막부와 조정 간 내전(조큐의 난)의 여진도 사라지지 않은 ‘전후’의 시공간에서 『헤이케 이야기』 지은이들은 방대한 역사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 같은 신속한 반응에는 강렬한 정치적 충격에서 태어난 원령에 한시라도 서둘러 언어를 부여

하려는 태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헤이케 이야기』는 존재를 섬멸당한 망자를 가타리모노(語り物) 예능 속에 위치 짓고 기록으로 남겨 추모하고자 한 장대한 문학 프로젝트이자 ‘전후’ 진혼 문학으로서의 성격을 농후하게 띤다.⁷

『헤이케 이야기』의 중대 관심사는 겐페이 전쟁으로 인해 장기간 번영을 누렸던 헤이안쿄(平安京)=교토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었다. 수도 붕괴에 대한 한탄이 『헤이케 이야기』 여기저기에 보이는데, 예를 들어 다음은 5권 「천도」에서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가 후쿠하라(福原) 환도를 단행하는 부분이다.

간무 천황은 “옛날부터 역대 임금들이 각지에 궁을 세웠지만 이만한 승지는 없었다”며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 간무 천황은 다름 아닌 다이라씨의 조상으로서 이곳을 헤이안쿄(平安京)라 이름 지었는데, 말 그대로 평안한 서울이 되라는 의미에서였다. 그런즉 이곳은 다이라 일문이 가장 소중히 해야 할 곳이었다. 직계 조상인 임금이 그토록 집착을 보이던 서울을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다니 말이 되지 않았다. … 지존이요 만승의 군주라도 옮기기 어려운 것이 도성인데 기요모리 공은 신하의 몸으로 옮기고 말았으니 무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⁸

다른 사람도 아닌 간무 천황의 자손인 다이라노 기요모리가 후쿠하라로 환도한다는 소문으로 도성은 발각 뒤집혔다. 이 같은 『헤이케 이야기』 속 재난의 에너지는 단노우라에서 헤이케가 멸망한 직후에 일어난 대지진(분지진)으로 클라이맥스에 이른다.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며 홍수가 나고 큰불이 솟구치는 일련의 목시록적 광경을 통해 『헤이케 이야기』는 대지진이 피하기 힘든 ‘재액’이라는 인상을 독자에게 깊이 남기는 동시에 그 원인

7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 의 계보』, 128~131쪽.

8 오찬욱 옮김, 『헤이케 이야기』 1, 문학과지성사, 2006, 306~307쪽.

으로 무시무시한 헤이케의 ‘원령’을 강조한다.

『만엽집』이나 『헤이케 이야기』를 “일본인의 마음의 고향”이나 “국민의 고전”이라 규정하는 통설적인 이해에 비한다면, ‘전후’의 부흥문학으로 파악하는 후쿠시마의 시점이 분명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⁹ 다만 잘 생각해 보면, 문학은 언제나 패자 편에 서서 승자가 만들어 내는 ‘이야기’(역사)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승자의 이야기 구조로 수렴된다.¹⁰ 후술하듯이 특별히 그것을 일본 문학의 전통이라고 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앞서 소개한 『만엽집』 권두가는 역대 천황의 노래를 맨 앞에 배치함으로써 이 가집 편찬사업이 중앙 조정에 의한 앤솔로지라는 점을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지역과 지방의 관점에서 매력적인 장 제목 “수도의 중력, 중력의 도시”는 고전 문학을 시작으로 하여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나카가미 겐지의 소설까지 시야에 둔 것이다. ‘중심’과 ‘주변’을 둘러싼 후쿠시마의 고민은 단순히 ‘지방’을 내세우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제언으로 연결된다.

요즘 일본 순문학계에서는 토속적이고 거친 지방 도시의 생태를 다룬 작품군이 속 빈 활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지방 출신 작가가 아무리 열심히 토속적인 이야기를 쓴들 그것은 기껏해야 문학의 이권과 독자가 모이는 수도(도쿄)의 노리개가 될 뿐이다. 반복하자면 일본의 이야기에는 지방이 수도에 보내는 ‘봉헌물’의 성격이 있었으며, 사실 이는 근대 이후에도 그리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문학의 전통에 도전하려면 수도에 대항해 지방을(중심에 대항해 주변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수도 문학의 프로그램 자체를 고쳐 써야 한다.¹¹

9 특히 국민국가의 문화장치의 하나로 ‘만들어진 고전’으로서 『만엽집』에 대한 비판은 品田悦一, 『万葉集の発明』, 新曜社, 2001 참조.

10 『회풍조』에 대해 『만엽집』, 혹은 『일본서기』에 대해 『고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수(複數)의 고대’라는 맥락에서 비로소 설명 가능하다. 神野志隆光, 『複數の「古代」』, 講談社, 2007 참조.

11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 155쪽.

수도 문학의 프로그램을 아예 바꾸는 것만이 일본 문학의 전통에 대한 도전이라는 후쿠시마의 인식은 그 고민의 깊이만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근세 '유민' 내셔널리즘 신화에서 중국과 일본

이처럼 방대한 스펙트럼을 가지며 일본 문학사를 종횡무진하는 그의 논의는 기존의 문학사의 통념을 뛰어넘어 여러 학문 분야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전후' 시스템으로서의 일본 문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흥 문화론'은 근세 이후 중국과의 영향 관계로 시공간을 일시에 확장함으로써 논리의 비약도 심해진다.

특히 근세 부분에서는 후쿠시마의 논의가 야마모토 시치헤이(山本七平)의 저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불만이다. 평론가 야마모토 시치헤이의 2007년 저서 『현인신의 창조자들』은 일본 내셔널리즘의 원류를 중국인 유민(流民)에게서 찾는다.¹² 독창적 견해로 가득하기는 하나 학술적 논의로 가져오기에는 지나치게 허술하다. 이를 답습하여 후쿠시마는 근세 중국에서 출현한 '유민'이라는 존재 양식이 일본 사회에 내셔널리즘을 발병케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 증거로 삼은 텍스트는 『헤이케 이야기』와 대조적인 『태평기』(太平記)이다.

근세 내셔널리즘이 감염될 수 있는 토대를 다진 신화적 작품으로는 우선 중국 풍의 군기 이야기인 『태평기』를 들 수 있다. 『헤이케 이야기』가 어디까지나 가문 간 내전을 다루었다면, 14세기 후반에 40권본이 성립되었다고 전해지는 『태평기』는 가마쿠라 말기의 동란을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국가 간 전쟁에 가깝게 그려내고 있다. ... 이런 철저한 선례주의가 『헤이케 이야기』와 『태평기』의 질적 차이를 낳는다. 단노우라에서 섬멸된 헤이케 일족의 '진혼'을 취지로 저술된 『헤이케 이야기』는 헤이케 일족의 멸망을 달리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다루

12 山本七平, 『現人神の創造者たち』, 筑摩書房, 2007.

었다. 그 충격적인 역사를 왕조 문학 이래의 유려한 문장으로 다시 감싸 더없이 정련된 양식으로 후세에 전한 것이 『헤이케 이야기』가 보여준 진혼의 형태였다. … 반대로 『태평기』는 일본인이 줄곧 불완전하게 체험해온 국가 멸망의 기록을 기꺼운 듯 중국사에서 불러냈다. 중국의 전쟁과 멸망이 보여주는 패턴에 지배당한 『태평기』에서 멸망이라는 사건은 완전히 진부해지고 그 일회성이 소거된다.¹³

『태평기』의 독자는 역사상 여러 번 일어난 멸망이 가마쿠라 시대 말기 일본에서 사실상 반복된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태평기』가 『헤이케 이야기』의 전쟁 기록을 ‘패러디화’하고 재탕했다는 효도 히로미(兵藤裕己)의 지적은 적절하다.¹⁴ 확실히 『태평기』는 고대 중국 오나라와 월나라(부차와 구천)의 싸움, 한나라와 초나라(유방과 항우)의 싸움을 지겹도록 반복해 참조하며, 등장 인물들에게도 중국식으로 유형화된 성격을 부여한다.

대군세의 위용이 결연하게 천지를 압도하며 산천을 움직일 정도였다. 이밖에 방계영주들은 어떤 자는 오천 기, 어떤 자는 이삼천 기를 이끌고 제각각 13일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 성을 향해 진군하였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천축·고려·남만에서도 이같이 대병력을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귀한 사람이나 미천한 사람이나 모두 나와 구경하며 혀를 내둘렀다.¹⁵

『태평기』 권6에서 막부군이 아카사카성을 공격하는 장면이다. 『태평기』에서 일본은 중국과 천축에서도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군세를 동원할 수 있는 ‘대국’의 풍모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호들갑스러운 서술 덕분에 ‘소국’ 일본에서는 본래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태평기』 안에서는 빈

13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 의 계보』, 253~259쪽.

14 兵藤裕己, 『太平記(よみ)の可能性』, 講談社, 2005, 35~36쪽.

15 이하 번역은 배관문 외 옮김, 『태평기』 1~4, 세창출판사, 2022(근간)에서 발췌.

번히 일어난다. 말하자면 남북조 시대에 발생한 대규모 내란의 실상을 그리
 는 것은 때로 판타지 그 자체에 가까웠던 것이다. 이야기 승려 고지마 법사
 (小島法師)에 의해 전승된 『태평기』는 이전의 이야기 문학과 마찬가지로 예
 능민=천민이 지배자에게 바친 ‘봉헌물’로서의 이야기와 똑같은 부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 『태평기』는 이름 그대로 ‘전후’의 ‘태평’을 기원하는 주
 술적=예능적인 부흥 문학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태평기』는 그러한 전통
 의 틀에 균열을 내기도 한다. 주술적=예능적인 이야기에 중국사의 기억이
 덧칠될 때, 종래 일본사와 일본 문학에 출현하지 않던 불가사의한 인간들의
 약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태평기』의 최대 ‘발명품’이라 일컬어지는 구스
 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신화가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근세화에 의해 실현되었다. … 마사시
 게는 초능력을 지닌 중세의 불가사의한 병법가에서 역경에 처한 고다이오 천황
 을 위해 진력하는 근세적 충신으로 거듭난다. … 반쯤은 허구적인 인물이 어떤
 정치철학에도 놀리지 않는 강력한 신화소가 되어 근세 일본의 국가상을 윤곽
 지었다는 것, 나는 여기에서 일본 내셔널리즘의 가상성(virtuality)을 발견하지 않
 을 수 없다. 실제로 이 가상성 탓에 『태평기』에 제시된 내이션은 그 규모가 때
 때로 변한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태평기』는 중국의 국가 간 전쟁과 멸망 형식
 을 반복하는데, 그것이 ‘소국’ 일본이라는 하드웨어에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그
 때문에 훗날 이 ‘중국화’ 프로그램에 경량화·고속화 처리가 이루어졌고, 마침
 내 일본 대중문화(서브컬처)의 대표작을 낳게 된다. 『태평기』의 「엔야 관관의 참
 사」(塩治判官讒死之事)를 ‘세계’로 한 『가나데혼 주신구라』(仮名手本忠臣蔵, 1748년 초
 연)가 바로 그것이다. …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일본에서는 전면적 멸망도 유민
 도 모두 어차피 가상적이고 이국적인 것에 불과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셔
 널리즘의 이미지는 때로 만화적으로 과격화되었다.¹⁶

16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 263~273쪽.

긴 인용문을 전제한 것은 ‘유민 내셔널리즘’에서 일본 내셔널리즘의 ‘가상성’을 이끌어 내고, 그것이 일본 서브컬처의 기원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논의의 핵심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최근 역사가들은 『태평기』의 마사시게 신화화가 에도 시대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참신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와카오 마사키(若尾正希)는 중세에 영주층부터 사상가, 민중에 이르기까지 국가관을 공유하게 만든 것이 현밀불교(顯密佛敎)였다면, 근세에는 그 역할이 ‘태평기 읽기’(『태평기』의 뜻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¹⁷

자결을 앞두고, 마사시게가 아우 마사스에에게 물었다. “무릇 인간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품은 일념에 의해 내세에 극락으로 가게 될지 지옥에 떨어질지 정해진다고 하지. 구계(九界) 중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더냐. 곧 그곳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자 마사스에가 껄껄 웃으며 답하였다. “그러면 일곱 번 다시 태어나도 [七生] 역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조정의 적을 무찌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사시게는 진정으로 기쁜 모습이였다.

위와 같이 극적으로 이야기되는 마사시게 형제의 자결이 ‘칠생보국’(七生報國)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이후 제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충군애국의 교본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태평기』는 일관성 없는 기술과 문학적 서정성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일본사 및 고전 문학사에서는 『헤이케 이야기』와 나란히 언급되면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근세에 강담(講談)이라는 형태로 일반에 널리 유행하여 민중의 역사의식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 신흥무사들 입장에서는 필수불가결한 병학서인 동시에 상식이자 교양이 담긴 일종의 백과사

17 若尾政希, 『『太平記よみ』の時代』, 平凡社, 2012, 384쪽.

전으로 기능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출판 미디어의 힘을 빌려 길거리 예능부터 각종 연극 무대 등을 통해 ‘이야기’(픽션)로서의 역사가 확산되었다. 요컨대, 실제 일본 사회 공통의 역사를 만든 것은 실록 이상으로 ‘이야기’로서 유통되고 공유된 역사였다.

이렇게 볼 때 후쿠시마가 『태평기』에 주목한 것은 최신 연구와 공명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중일 관계 속 근세 내셔널리즘의 유행을 근대와 직결시키기는 아직 이르다. 가마쿠라의 동국무사단과 교토의 관군이라는 대립 구도는 이후 교토의 막부군(북조)과 요시노 조정(남조) 간의 대립으로 변화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또한 근세 국학의 예로 든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나 교쿠테이(다키자와) 바킨(曲亭馬琴)의 경우는 교토, 오사카, 에도 등을 둘러싼 복잡미묘한 시선을 무시하고 더더욱 ‘일본’ 인식으로 통일되어서는 곤란하다.¹⁸

3) 무상관의 함정인가 극복인가

이제 고전 문학의 전통을 이은 근현대 문학의 흐름을 ‘전후’ 부흥 문화론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본서의 후반부에 대해 검토해 보자. 먼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는 1930년에 출간한 장편소설 『아사쿠사 구레나이단』(淺草紅団)에서 “다이쇼 지진 후 구획 정리로 새롭게 그려진 쇼와의 지도”를 구상했다. 이는 쇼와 초기 아사쿠사의 인간 군상과 도시 정경을 서정성 높은 문체로 그려 ‘아사쿠사 봄’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받는다.

도쿄는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에도와 결별할 수 있었다. 그 때까지 도쿄의 시가지는 에도의 시가지와 규모가 거의 비슷했으나, 진재 후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많은 시민이 교외에 살게 되면서 도쿄 시가지의 규모가 단숨에 확대되었다. … ‘제도 부흥사업’에 의해 촉진된 도쿄의 도시화와 교외화는

18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하지만 예를 들어 나가시마 히로아키, 「근세문학에 나타난 ‘에도’상」, 정형 외, 『일본문학 속 에도·도쿄 표상연구』, 제이앤씨, 2009, 57~79쪽 참조.

에도의 끝과 도쿄의 시작을 고지했고, 이는 문학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여기서는 관동대지진 후 부흥 문화의 거점으로서 아사쿠사에 눈을 돌린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종래의 근대 문학이 갖추지 못했던 ‘미의 장치’를 새로 만들어낸 것에 주목해보자.¹⁹

일반적으로 가와바타는 일본의 전통미를 그린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사쿠사 구레나이단』에 주목한다면, 초기 작가 시절 그는 오히려 진재 후 도시의 대중화 현상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는 일본미의 작가이기에 앞서 일본미의 장치=대중극장을 만든 작가였다. 조야한 문명 속에서 미(美)를 실현하려면 우선 미를 보전할 극장을 지어야만 했다. 특히 관동대지진 부흥기 일본에서 그것은 아마추어 예능을 상연하는 극장으로 나타났으며, 그는 이로부터 인종도 계급도 용해시키는 대중화 현상 및 관객을 발견하게 된다.

『이즈의 무희』와 『아사쿠사 구레나이단』 이후에도 가와바타의 문학은 무대 공간이 매번 바뀌어도 극장적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다. 아사쿠사든 이즈든 교토(『교도』)든 니가타 유자와마치(『설국』)든, 혹은 아름다운 소녀가 곤히 자는 여관(『잠자는 미녀』)이든 가와바타의 ‘미의 극장’은 어떤 장소라도 아무 어려움 없이 설치되고 운영된다. … 『만엽집』 이래 일본 문학에서 약동해온 ‘고도’(古都)의 계보에 바야흐로 순수한 극장 도시가 된 교토를 덧붙인 것이다.

관동대지진 후의 ‘극장의 발견’ 혹은 ‘관객의 발견’은 훗날 일본의 문화 현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아키하바라(秋葉原) 같은 서브컬처 도시가 미의 예능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아마추어적 미가 빛을 발하는 『아사쿠사 구레나이단』 세계관의 연장선상에 있다. 관동대지진의 부흥 문화로서 ‘아사쿠사적인 것’은 오늘날의 대중화 현상인 ‘아키하바라적인 것’의 기원이

19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 350~352쪽.

되었다.²⁰

관동대지진의 이재민을 목격한 가와바타는 그때의 인상을 1934년 에세이 「문학적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남겼다.

긴자보다 아사쿠사, 고급 주택가보다 빈민굴이, 여학교 하교 시간보다 담배공장 여공 무리가 내게는 서정적이다. 불결한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린다. ... 나는 다분히 망국의 백성이다. 지진으로 망명길에 오른 듯한 이재민의 끝없는 행렬만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간의 모습은 없다.²¹

이 문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압축되어 있다. 첫째, 지진에 의한 수도=도쿄의 붕괴가 말 그대로 “망국”과 연관된다. 둘째, 가와바타 자신은 “망명길에 오른 듯한 이재민”을 철저히 옆에서 ‘보는’ 측에 서 있다. 즉 가와바타는 “망국의 백성”을 동경하면서도 결코 자신이 그 당사자가 되지 않는 않으며, 지진 이재민을 마치 이국적 판타지의 광경처럼 이야기한다.

후쿠시마 료타가 주목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이러한 문학적 경향은 근현대 문학의 전형적인 이해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를 필두로 하는 현대 서브컬처 분석으로 곧장 연결된다.

미야자키는 결코 ‘일본 회귀’를 한 것이 아니다. 「모노노케 히메」의 숲은 일본인 동시에 일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원시 숲에서 일본의 생활 양식은 그대로 ‘동아’의 생활 양식과 이어진다. 고립된 벼농사 문명(농민)으로 상징되어온 일본은 미끌거리는 액체로 이루어진 시시가미 슬하에서 조엽수림에 근거한 제국적 농경 문화에 접속해 결국 수렵민과 천민 등 ‘이방인’까지 수용한 완전히 다른 ‘일본’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른 관점에서 이는 전쟁 전 ‘대일본제국’의 지리적

20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 356, 363~364쪽.

21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 245쪽.(재인용)

상상력을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더구나 서브컬처의 ‘제국 지향’은 미야자키에 한정되지 않으며 테즈카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들에게서도 반복된다. … ‘전후’의 서브컬처는 전쟁으로부터의 부흥 문화인 동시에 전쟁을 부흥시키는 문화이기도 하며, 이러한 전쟁의 부흥 속에서 다원적인 ‘제국’의 이미지도 재생되어왔다.²²

미야자키 감독의 애니메이션을 피상적인 ‘일본 회귀’나 ‘제국 지향’으로 비판하는 경향에 대해, 후쿠시마는 상당히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한다. ‘일본’ 회귀가 분명하지만 그것은 ‘일본’이 아니라는 점,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쟁으로부터의 부흥 문화인 동시에 전쟁을 부흥시키는 문화”였다는 점 등은 ‘부흥’에 대한 관점에서도 경청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무상관의 미학이 현대 작가들에게서 안이하게 반복되고 있다면, 후쿠시마는 다음과 같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2011년 카탈루냐 국제상 수상 연설을 예로 들면서 지적한다. 하루키의 이 연설은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지 반년 후의 일이었던 만큼 3·11을 바라보는 하루키의 시선이 투영된 것으로 당시에도 주목되었다.

일본어에는 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상태=변치 않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결국 소멸하며 모든 것은 한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변천합니다. 영원한 안정이나 의지하고 따를 불변 불멸자 따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온 세계관인 이 ‘무상’이라는 사고방식은 종교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일본인의 정신성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으며, 민족적인 심성으로서 고대 이후 거의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갈 뿐이다’라는 관점은 말하자면 체념의 세계관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연의 흐름에 역행해 봤자 모두 허사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인은 그러한 체념 속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미의 존재 방식을 찾

22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 432~434쪽.

아내 왔습니다.²³ (번역은 인용자)

후쿠시마는 이것이 전형적인 “무상관의 함정”이라고 비판한다.

일본인의 미나 정신의 본질을 ‘무상관’에서 찾는 것은 예부터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온 틀에 박힌 방식이다. 무라카미는 결국 재해를 구실 삼아 서양인의 구미에 맞는 일본의 이미지를 재강화한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렇게 말하면서 일본인 스스로도 점차 무상관을 유일하게 내세울 만한 자신의 미학이라고 착각해버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이 일본의 미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문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할지 상상해보라. 결국 머뭇거리다 ‘무상’이나 ‘와비사비’(侘び寂び)와 같이 묘하게 신비화된 개념만을 말하지 않겠는가.²⁴

후쿠시마의 “무상관의 함정”이라는 비판은 무라카미 하루키를 필두로 하여 전후 민주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까지 이어진다.

정치학자 마루야마 마사오는 기기 신화(記紀神話)를 예로 들어 “점차 번져가는 기세”, 즉 자연 생성을 긍정하는 의식이 일본인의 정신 구조를 깊숙이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지적인 “작위”가 아니라 끌려가는 “생성”—어떻게든 된다!—이 일본의 “고층”(古層)을 이루며 그것이 일본인의 정치적 결단을 주저앉힌다는 것이다. 반대로 일본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마루야마의 이론을 반전시켜 오히려 “점차 번져가는 기세”=자연 생성이야말로 미적인 것이라며 감상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요컨대 칭찬이든 비난이든 일본은 종종 “무작위”의 나라, 자연의 “기세”에 몸을 맡기는 주체성 없는 나라로 여겨져온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본론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 문화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미래 지향적인 것도 아니다. 마루야마건 포스트 모더니스트건 결

23 「非現実的な夢想家として」, <https://apjif.org/2011/9/29/Murakami-Haruki/3571/article.html> (최종 검색일: 2022. 7. 10.).

24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 445쪽.

국은 단순히 일본 문화의 일부만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무상관과 생성의 미학은 오늘날까지 때마다 반복되며 비평적 분석에서 다양성을 빼앗아 왔다.²⁵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루야마 마사오의 유명한 역사의식의 ‘고층’(古層)론이다. ‘무상관’ 논의에 굳이 ‘무작위’의 ‘고층’론까지 가져와서 함께 논해야만 하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지만, 이로써 후쿠시마가 부흥 문화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단순히 무상관이나 체념에 머무는 미학에 우리가 정말 매료될 수 있을까? 미의 진정한 힘은 오히려 그러한 니힐리즘을 격파하고 인간과 세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지 않을까?

내가 ‘일본’에 대해 쓴 것은 일본인으로서 ‘일본’을 다정하게 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을 방주에 태워 미래의 허공으로 떠나보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미래의 하늘은 어쩌면 평온하고 맑게 갠 하늘이 아니라 폭풍과 뇌우가 소용돌이치는 엄혹한 기후에 지배당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²⁶

후쿠시마의 논의가 ‘일본’ 옹호가 아니라 ‘일본’ 비판의 입장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일본 문학사·문화사를 통사적으로 기술하면서 그것을 ‘일본적’ 특징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일본의 역사적 체험 자체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낸다는, 얼마간 낭만주의적 욕망”²⁷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25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 447쪽.

26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 446, 463쪽.

27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 463쪽.

3. 포스트 3·11 재난문학의 동향과 전망

후쿠시마 료타의 부흥 문화론은 당연히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대지진을 의식하고 집필된 것이다. “언어와 이미지의 재건”을 통해 ‘부흥’을 꾀한 것이다. 이것이 3·11 직후 일본 문학계의 활발한 대응과 연동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설가 시마다 마사히코(島田雅彦)의 제창으로 인터넷 서점인 ‘부흥서점’(復興書店, Revival & Survival)이 웹상으로 개설되었다. 동일본대지진 부흥을 작가들의 작품으로 지원하려는 의도였다. 다카하시 겐이치로(高橋源一郎), 히라노 게이이치로(平野啓一郎), 다와라 마치(俵万智) 등 다수의 문학자가 이에 참여하여 자신의 작품에 사인이나 메시지를 넣어 무상으로 책을 제공하였다. 또한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를 비롯한 문학자들이 탈원전 캠페인과 집회에 참석하였다.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문학을 비롯한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등 예술의 각 분야는 ‘재난 이후의 동향’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자들도 이 새로운 유형의 작품들에 주목하고 비평적으로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중에서도 문학계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빠르게 또한 치열하게 재난 이후의 삶을 성찰했고 그러한 고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예를 들면, 재난시와 재난단카의 경우 SNS라는 새로운 창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창작활동을 펴 나갔다는 점에서 대중의 반응과 호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문학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그러한 작품들의 중심에 “일본어”, “일본어의 힘”을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⁸ 이러한 경향은 3·11 이후 일본 사회의 재건 과정에서 자국민의 심리적 부흥을 위한 시도들이 행해진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재난문학이 이른바 부흥 내셔널리즘이라 불리는 현상과 긴밀하게 연동하고 있다는 본고의 문제의식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여하튼 3·11을 계기로 ‘진재문학’(震災文学)과 ‘원전문학’(原発文学)은 일

28 최가형, 「일본사회의 부흥 내셔널리즘과 부상(浮上)하는 일본어의 힘」, 『亞細亞研究』 170호, 2017.

본 문학의 한 장르이자 문단의 비평용어로 성립했다.²⁹ 일본은 지진이 잦아 ‘진재’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지만, 한국에는 특정한 학문적 용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다 넓은 의미의 ‘재난문학’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재난문학은 첫째, 재난 당시부터 그 이후의 사회상을 형상화해 집단기억의 형성에 일조한다. 둘째, 문학을 통해 절망스러운 현실에 희망을 발견하고 위안과 치유의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문명비판론의 관점에서 재난의 원인과 성격을 재고하는 한편 인문학적 교훈을 통해 재난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재난문학의 이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3·11 이후 문학이 일본 정부의 재난 대응방식에 대한 비판이나 원전을 낳은 현대문명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로지 애국심이나 국민적 단합에만 호소하는 식이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재난 논의방식은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재난공동체’로서 전 인류적 대응에 관한 진지한 성찰이 미흡하다고 하겠다. 재난 이후의 디스토피아를 그린 다와다 요코의 「불사의 섬」과 「헌등사」를 분석한 남상욱이 이들 소설을 재난문학 속에 가두지 말고 오히려 세계문학으로서 읽을 가능성을 주장한 것도 일리가 있다.³⁰

재난문학의 가장 큰 의의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재난을 타자의 일이 아닌 ‘나’와 직결되는 ‘우리’의 문제로 체험하게 한다는 점일 것이다. 후쿠시마는 ‘전후’ 문학으로서 근대 문학의 성격을 검증하면서 ‘내면’=‘나’의 문학, ‘미’=‘우리’의 문학이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근대 문학은 러일전쟁과 관동대지진을 중요한 계기로 하여 두 가지 카테고리를 창출했다. 하나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나’의 문학이며, 또 하나는 ‘미’의 극장의 관객으로서 ‘우리’의 문학이다. 전자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부터 다자이 오

29 기본적인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川村湊, 『震災・原発文学論』, インパクト出版会, 2013; 木村朗子, 『震災後文学論: あたらしい日本文学のために』, 青土社, 2013; 木村朗子, 『その後の震災後文学論』, 青土社, 2018; 黒古一夫, 『原発文学史・論: 絶望的な「核(原発)」状況に抗して』, 社会評論社, 2018; 限界研外編, 『東日本大震災後文学論』, 南雲堂, 2017.

30 남상욱, 「디스토피아의 언어세계: 다와다 요코의 「불사의 섬」과 「헌등사」를 중심으로」, 『比較文化研究』 제51호, 2018.

사무(太宰治), 후자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에도가와 란포(江戸川乱歩)부터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에 이르는 계보였다. 이후 문학에서 ‘미’의 극장이 쇠퇴함에 따라 문학이 할 일, 시대적 역할은 불투명해졌다. 그 역할이 점차 애니메이션과 같은 다른 미디어로 이전해 가는 것도 필연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난문학은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과연 문학의 역할이 남아 있는지를 되물을 수밖에 없다.

국내 연구자들 중에도 일본 근현대 문학 전공자들 가운데 포스트 3·11 재난문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여기서는 그 성과들을 일부 참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심정명은 최근 연구에서 쓰나미의 죽음이 준 충격이 일본 문학에서는 ‘달라진 세계’나 ‘언어의 한계’라는 문제로서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반응에 내재하는 ‘지역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는 시바사키 도모카(柴崎友香)의 소설 『내가 없었던 거리에서』(私がいなかった街で)를 재난에 대한 거리(距離)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것인데, 심정명에 따르면 이 작품은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지난 전쟁이라는 역사에서 출발하지만, 동시대에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영상을 통해 거듭 바라보는 주인공을 통해 먼 곳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바라본다는 것과 그 사이에 있는 거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이때 자연재해와 전쟁은 인과관계나 책임이 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표상되고, 이는 동일본대지진을 전쟁에 비유한 많은 문학적 논의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또한 주인공이 바라보는 많은 전쟁을 이미 지나간 과거로 만들면서 그 모든 사건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똑같이 먼 거리에 있음을 강조하는 이 작품은 일본 문학에 나타난 동일본 대지진 ‘이후’를 둘러싼 담론과 같은 한계성을 공유한다는 것이다.³¹ 이어서 심정명은 원전 사고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사회

31 심정명, 「재난과의 거리: 『내가 없었던 거리에서』와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일본문학」, 『일본공간』 27호, 2020.



〈그림 1〉 후쿠시마시 아즈마 구장. 원전사고 현장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으로 도쿄올림픽 첫 공식전인 소프트볼 경기가 열렸다.

출처: 「오늘 올림픽 첫경기 후쿠시마, 조용히 희망을 기다린다 [도쿄올림픽D-2] 동일본 대지진 아픔의 땅 가보니」, 『조선일보』 2021. 7. 21.

적 망각에 맞서는 작품으로 고바야시 에리카(小林エリカ)의 『트리니티, 트리니티, 트리니티』(トリニティ、トリニティ、トリニティ)를 분석하기도 했다. 이 소설은 2020 도쿄 올림픽을 배경으로 함으로써 이른바 ‘부흥오륜’(復興五輪)의 이면에서 진행되는 원전 사고에 대한 망각에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올림픽과 방사능을 계기로 갖가지 전쟁과 재난들을 연결하고 상기시킨다.³²

지난 2021년, 동일본대지진의 재해로부터 ‘부흥’하는 것을 천명하며 2020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었으나 과연 얼마만큼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도쿄올림픽이 내세우는 ‘부흥’의 논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더 많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별고에서 후쿠시마 원전 노동자들이 놓여 있는 차별과 억압의 구조에 관해 주목한 바 있다.³³ 이때 2020 도쿄올림픽과 관련하여 정작 후쿠시마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올림픽 개최 직전까지도 일관되게 부흥올림픽을 위해 후쿠시마를 정치 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달

32 심정명, 「문학적 상상을 통한 재난 경험의 확장: 고바야시 에리카 『트리니티, 트리니티, 트리니티』와 방사능의 기억」, 『일본학보』 129호, 2021.

33 배관문,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 된 후쿠시마: 현대일본 표상문화론에서 서발된 연구의 가능성」, 『일본연구』 91호, 2022, 7~24쪽.



〈그림 2〉 도쿄올림픽 메인스타디움 국립경기장

출처: 「도쿄올림픽 D-200, 성화 출발전지 방사능 핫스팟 발견, 문제없나」, 『중앙일보』 2020. 1. 7.

가워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도쿄가 아닌, 후쿠시마에서 생각하는 도쿄올림픽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배경이라 하겠다. 논지의 핵심은 미디어에서의 재현과 실제 후쿠시마 사람들의 목소리의 간극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내부차별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 온 일본의 시스템이라고 결론지었다.

2020 도쿄올림픽을 전후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피해와 고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의 정도를 축소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려 했던 의도는 자명하다. 그것은 전적으로 ‘국익’을 위해서였다. ‘국민’이나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부’나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겠다. 물론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종종 ‘부흥’의 상징으로 이용되는 점에 관해서는 도쿄올림픽이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겠다. 본고에서는 다만 이때 일본에서 말하는 ‘부흥’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고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이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후쿠시마 료타의 일본 문학사 해석을 검증하면서 ‘재해-부흥’과 관련한 일본의 사상과 미학을 재고해 보려 했다. 그의 부흥 문화론은 종래 전통적인 문학과 사상사의 통념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매우 신선하게 읽힌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논점은 결국 2020 도쿄올림픽의 ‘부흥’ 논리와 유사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아즈마 히로키(東浩紀)를 잇는 주목받는 현대 사상가로서 일본의 젊은 층에서 후쿠시마 료타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지점이다. ‘재해-부흥’으로 어느 정도 일관되게 읽을 수 있는 일본문화론의 중요성이나 의의를 전면 부정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필자는 그러한 관점이 동일본대지진 이후 ‘진재문학’ 혹은 ‘재난문학’이라는 용어로 적극 이야기되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 동조하는 입장에서 있다. 다만 이러한 부흥 담론에서 놓치고 있는 지점, 즉 ‘일본’ 부흥 문화론이 ‘지방’과 ‘지역’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료타의 부흥 담론은 — 그 자신은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일본 내셔널리즘이라는 거대담론에 함몰되어 ‘지방’과 ‘지역’을 경시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더불어 후쿠시마 료타가 인용한 고전 작품들에서는 국가적인 부흥이 아니라 ‘지방’과 ‘지역’의 부흥에 관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근대 국가가 출현하기 이전에 발생한 고전 문학에서는 오늘날 일본 정부나 국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재해’와 ‘부흥’을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일본의 부흥’이라는 명목 때문에 망각하기 쉬운 ‘지방’과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

투고일자: 2022. 6. 21. | 심사완료일자: 2022. 7. 3. | 게재확정일자: 2022. 7. 13.

治学』23卷, 1972.

三谷太一郎, 『近代日本の戦争と政治』, 岩波書店, 1997.

일본 부흥 내셔널리즘을 넘어서: 포스트 3·11 재난문학의 행방 | 배관문

구정호 옮김, 『만요슈: 고대 일본을 읽는 백과사전』, 살림, 2005.

오찬욱 옮김, 『헤이케 이야기』 1, 문학과지성사, 2006.

남상욱, 「디스토피아의 언어세계: 다와다 요코의 「불사의 섬」과 「현등사」를 중심으로」, 『比較文化研究』 제51집, 2018.

배관문,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 된 후쿠시마: 현대일본 표상문화론에서 서발된 연구의 가능성」, 『일본연구』 91권, 2022.

심정명, 「재난과의 거리: 「내가 없었던 거리에서」와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일본문학」, 『일본공간』 27권, 2020.

심정명, 「문학적 상상을 통한 재난 경험의 확장: 고바야시 에리카 『트리니티, 트리니티, 트리니티』와 방사능의 기억」, 『일본학보』 제129권, 2021.

정형 외, 『일본문학 속 에도·도쿄 표상연구』, 제이앤씨, 2009.

최가형, 「일본사회의 부흥 내셔널리즘과 부상(浮上)하는 일본어의 힘」, 『亞細亞研究』 60권 4호, 2017.

후쿠시마 료타, 안지영 외 옮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 리시울, 2020.

川村湊, 『震災・原発文学論』, インパクト出版会, 2013.

木村朗子, 『震災後文学論: あたらしい日本文学のために』, 青土社, 2013.

木村朗子, 『その後の震災後文学論』, 青土社, 2018.

黒古一夫, 『原発文学史・論: 絶望的な「核(原発)」状況に抗して』, 社会評論社, 2018.

限界研 他 編, 『東日本大震災後文学論』, 南雲堂, 2017.

神野志隆光, 『複数の「古代」』, 講談社, 2007.

品田悦一, 『万葉集の発明』, 新曜社, 2001.

兵藤裕己, 『太平記くよみの可能性』, 講談社, 2005.

山本七平, 『現人神の創造者たち』, 筑摩書房, 2007.

若尾政希, 『「太平記よみ」の時代』, 平凡社, 2012.

「非現実的な夢想家として」, <https://apjif.org/2011/9/29/Murakami-Haruki/3571/article.html> (최종 검색일: 2022. 7. 10.).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일경쟁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정책 변화 | 이승희·김지영

강우철, 「일본ODA의 국제규범 준수와 공여국 중심주의: 개발협력대장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30권, 2017.

김석수,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남아시아의 역할」, 『동북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48호), 2019.

김진기, 「일본의 무기수출정책 변화: 전개과정, 배경, 의도」, 『국가전략』 제20권 제3호(통권 69호), 2014.

의 ‘근대’를 생각할 때의 기준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용희의 사유는 본인의 말대로 늘 ‘현대 속의 근대’를 살았다. 이는 그의 언설이 결코 ‘근대’로만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용희에게 ‘탈근대’의 맥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울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근대의 ‘모순’을 무엇으로 보았는지 이용희의 정치학이 지닌 ‘분노’의 원점으로 돌아가 확인한 후, 그것이 냉전 초기 ‘다민족주의 국가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탈냉전기 유럽의 지역통합을 놓고 논의된 ‘연방론’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E. H. 카를 시작으로 칼 슈미트로 이어지는 사상적 맥락과 함께 해명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근대의 밑바닥—식민지—에서 시작한 이용희의 국제정치학이 ‘제왕’의 학문으로서 도달한 지점이 어떻게 ‘한국적’ 역사성을 지녔는지 고찰했다.

주제어: 근대, 탈근대, 국제정치학, 민족주의, 지역주의, 식민지조선, 이용희, E. H. 카, 칼 슈미트.

일본 부흥 내셔널리즘을 넘어서: 포스트 3·11 재난문학의 행방 | 배관문

본고에서는 주로 후쿠시마 료타의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 의 계보』의 분석을 검증하면서 ‘재해-부흥’과 관련한 일본의 사상과 미학을 재고했다. 그의 부흥 문화론은 종래 전통적인 문화와 사상사의 통념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분명 신선하게 읽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논점은 결국 2020 도쿄올림픽의 ‘부흥’ 논리와 유사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재해-부흥’으로 어느 정도 일관되게 읽을 수 있는 일본문화론의 중요성이나 의의를 전면 부정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필자는 그러한 관점이 동일본대지진 이후 ‘진재문학’ 혹은 ‘재난문학’이라는 용어로 적극 이야기되며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 동조하는 입장에서 서 있다. 다만 양쪽의 부흥 담론에서 놓치고 있는 지점, 즉 ‘일본’ 부흥 문화론이 ‘지방’과 ‘지역’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2020 도쿄올림픽이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부흥을 제창했던 시기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가 지방인 후쿠시마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애초부터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마찬가지로 후쿠시마의 부흥 담론이 국가적인 전통과 역사, 내셔널리즘에 함몰되어 ‘지방’과 ‘지역’을 경시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은 것이다. 더불어 후쿠시마가 인용한 고전 작품들에서는 국가적인 부흥이 아니라 ‘지방’과 ‘지역’의 부흥에 관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조사했다. 왜냐하면 근대 국가가 출현하기 이전에 발생한 고전 문학에서는 오늘날과는 다른 관점에서 ‘재해’와 ‘부흥’을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주제어: 재난문학, 부흥, 후쿠시마 료타, 지방,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일경쟁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정책 변화 | 이승희·김지영

본 논문은 일본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의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협력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일본의 주요한 대외전략인 대중국 견제가 동남아시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과 현재해진 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두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이 비군사주의 규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안보협력 사례연구를 통해, 비전통적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비군사주의의 전통과, 이러한 전통에서 탈피하려는 방향성이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of Korean study (*kukhak*).

Paradoxically, his criticism of nationalism was not to criticize modernity itself, but to emphasize how Korea should pursue modernity properly. It was well illustrated that his criticism of nationalism has been concluded as another aspect of modernity and democracy.

However, Lee Yong-hee not only pursued the modernity, but also criticized the modernity whilst moving on to post-modern issues. His criticism of modernity was reflected in his study on the multiracial nationalism in the early Cold War era and the federalism that led to regional integration of post-Cold War Europe.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 tried to clarify that his studies began with frustration as a colonized via his assessment on modernity, reaching a kind of postmodern thought. He made a postmodern conclusion by using Carl Schmitt's federal theory including the imperialistic perspective, whereas avoiding hegemonic conclusions. Moreover, this shows characteristics of his Politics, which is a discipline for kings who run empires, and how it is connected to Korean historicity.

• **Keywords:** modernity, post-modernity, international politics, nationalism, regionalism, colonial Korea, Lee Yong-hee, E. H. Carr, Carl Schmitt.

Beyond the Japan's Reconstruction Culture Theory | BAE Kwan-mun

This paper reviews Japanese ideas and aesthetics related to “reconstruction” while verifying the analysis of Fukushima Ryota's *Reconstruction Culture Theory: Genealogy of Japanese Creation*. His Reconstruction Culture Theory is clearly fresh in that it reverses the conventional concepts of traditional literature and thought history. However, a closer look brings up a question whether his argument is eventually very similar to the ‘reconstruction’ logic of the 2020 Tokyo Olympics.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ignificance of Japanese culture theory, which can be read consistently to some extent as “reconstruction,” should be completely denied. I think highly of the fact that such a view began to be actively discussed in terms of “disaster literature” after the Tohoku Earthquake, and I stand with it. However, I consider it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what the Reconstruction Culture Theory of “Japan” means from the perspectives of “local” and “region,” which is missing in the reconstruction discourses on both sides.

In this light, I would like to ask whether Fukushima Ryota's reconstruction discourse — despite his own denial — neglects “local” and “region” by being preoccupied with national traditions, history and nationalism. In addition, I examined what position the classical works cited by Fukushima Ryota took on the “local” and “regional” reconstruction rather than national reconstruction. This is because I expected that classical literature, which had emerged before the appearance of the modern state, would explain ‘disaster’ and ‘reconstruction’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oday. I think this will open a new perspective on “local” and “region,” which are easy to forget in the name of “reconstruction of Japan.”

• **Keywords:** disaster, reconstruction, Fukushima Ryota, local, regional